

외대학보

새내기특집 874 호

2006년 2월 17일 (금요일)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박철 편집인 겸 주간 양민정 편집장 임선현 인쇄인 홍윤주 신문사 2173-2503, 962-7128(F) 학생기자실 (서울)2173-2504 FAX 2173-2505 (영인)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황산리 산 89

청춘

[青春;bloom of youth]

힘겨운 터널을 지나 왔습니다.
포기하고도 싶었고, 도망치고도 싶었습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느낄 때 마다
흐르던 눈물과 좌절감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 뜯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나의 가족들,
부모님의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절실한 꿈과 의지가 있었기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서울배움터 경영학부
06학번 이지환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나는 다시금 페달을 밟아
'인생'이라는 자전거를 힘차게 움직이려 합니다.

힘들 땀서로 다독이며
햇살 좋은 날엔 벗과 잠시 쉬어가며
따로는 넓치는 에너지로 객기도 한번 부려보며

내 인생의 '청춘'을 시작하려 합니다.

용인배움터 독일어과
06학번 강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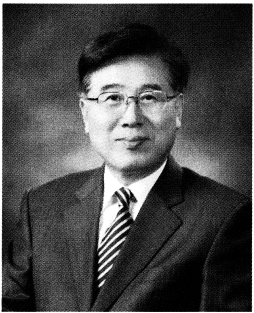
서울배움터 언론정보학부
06학번 조병욱

용인배움터 중앙아시아어과
06학번 김미중

사진: 채송아 기자

신임 총장 환영사

“성숙한 지성인으로 성장해 나가길”



사랑하는 외대 새내기 여러분!
여러분의 입학울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오랜 기간 학업입시를 위해 노력한 결실이기도
여러분의 기쁨은 한층 더 크리라 생각합니다. 민태
원 선생님이 「청춘예찬」에서 말하듯이 청춘의 프
거은 피는 인류 역사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역시 인생의 황금기를 맞아 힘차게 노력하
고 약동하면서 청춘의 꽃을 활짝 피우기 바랍니다.
대학은 낭만과 사랑의 마당인 동시에 전문지식과
지성을 연마하는 치열한 도량(道場)이 되어야 합니
다. 여러분, 지성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는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한 추상같은 비판정신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대상에는 반
드시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학
이 이 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깨어있는 비판정신으로 이 사회를
비추는 양심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지성을 연마하게 될 한국외국어
대학교는 비극적인 전쟁이 끝난 직후의 후진국 한
국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숭고한 뜻과 국제적
안목으로 이미 오대양 육대주를 향해 뻗어나가 쫓
는 시일 내에 학학의 명문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
다. 한국대학의 역사는 실로 선진한국의 역사와 발
자취를 같이 해왔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선배들은 외교관으로, 상사주재원
으로, 사업가로, 학자로 세계 모든 곳에 진출해서
탄탄한 외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여러분의 선배들은 각계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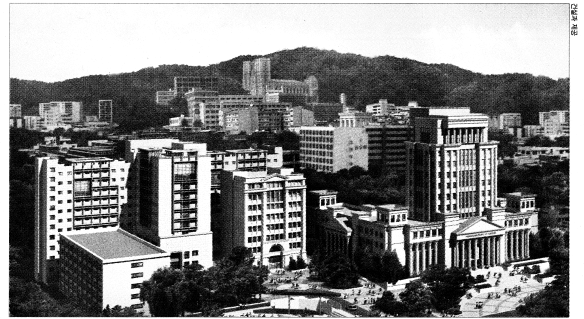
의 지도자로 활약하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한국외대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 학교의 전통을
만들고, 우리 한국의 지도자가 되고, 국제사회를
무대로 활약할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러한 미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학교에서는 여
러분에게 4년 내내 많은 말을 요구할 것입니다. 여
러분들도 엄격한 자기 규율을 통해 성숙한 지성인
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졸업할 때
에는 스스로에게 후회 없는 대학생활을 했노라고 자
랑스럽게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신입생 여러분,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
꾸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외대
인이 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환영의 인사를 보
내며 선배들이 함께 이루어주려 노력하는 환영식
을 가지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신임 총장 박 철

서울배움터 건축공사 드디어 착공



지난 달 16일(월) 기숙사를 비롯한 3개 건물에 대한
공사기 우여곡절 끝에 착공했다. 지난 해 ‘캠퍼스킵’
과의 계약 철회 이후 11월에 착공 될 예정이었으나
(주)서희건설과의 협상절차가 공사가 미뤄졌었다. 그
리고 지난 해 12월 27일(화) 재입찰을 통해 (주)동원개
발이 새로운 시공업체로 선정되면서 공사 윤곽이 드
러난 것이다. (주)동원개발은 재입찰에 참여했던 6개
기업 가운데 가장 적은 공사비인 305억원을 제시해
낙찰됐다. (주)동원개발은 양산대학 신축 공사와 부
속-울산산 고속도로 건설공사 등을 맡았던 업체다.

학생회관 및 기숙사의 공사는 기존에 언급 했던
BT(0)업체와 학교 측이 공동 투자한 후 업체에서 일
정기간 운영권을 제공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방식이 아니라 학교 측에서 공사비 전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따라 종 건설비 중 올해에는 교
비에서 138억과 함께 사학진흥재단에서 장기차입금
으로 빌린 30억, 건축 적립금 27억, 법학관 건설기금

15억 등 총 220억이 투자가 된다. 07년도에는 장기차
입금 20억과 함께 남은 금액은 교비에서 지불할 예정
이다.
현재 1단계 공종으로 공사 입지 확보를 위한 나무이
전 공사가 진행됐으며 이어 공사장 주위 펜스 설치와
면적제거가 설치, 임시 동력설치 및 지하배수관 등
이 진행된 후 2단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학생회
관 및 기숙사는 지하 2층, 지상 12층의 규모로, 3층까
지는 학생회관이 5층부터 12층까지는 기숙사가 들어
설 예정이다. 학생회관에는 동아리관과 행정 사무실,
학생식당이 들어선다. 법학관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12층의 규모로 도서관, 교수실, 강의실이 들어선다.
한편 13층까지 중축될 예정인 신본관은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착공에 대해 김호정 법인사무
처장은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졌지만 늦어진 만큼 박
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20일~22일 양배움터 새터 가요

교육대학원 우수 등급 받아



▲ 친구들이 환영해!!

지난 9일(목)부터 오십일 ‘새내기 준비반(새준반)’이 새터 중앙공연에서 선보일 공연을
연습하고 있다.

양배움터는 오는 20일(월)부터 22일(수)까지 3일 간
의 일정으로 새기세로배움터(새터)를 진행한다. 서
울배움터는 강원도에 위치한 낙산 프라타운을 숙
소로 사용하며 용인배움터는 강원도 속초시에 위치
한 금호콘도와 파인리조트 두 곳을 이용한다. 금호콘
도의 경우 경상대, 공대, 서유림대, 자대, 자유전공학
부가 머물게 되며 파인리조트는 동유림대, 아시아아
프리카대, 인문대가 이용하게 된다.

주요 일정으로 서울배움터는 첫째 날과 둘째 날에
각 단대별 일정을 갖고 둘째 날 저녁에는 중앙공연을
진행한다. 용인배움터는 첫째 날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서 중앙공연을 갖고 둘째 날에는 단대별 시간과 함께

동아리를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학교를 진행
한다. 또한 작년까지 다르게 양배움터 자유전공학부
는 타 단대처럼 독립적으로 일정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중앙공연 장소 변경에 대해 용인배움터 총학생
회 기획감각 이정민(아시아프리카·일본어 99)은
“중앙공연을 학부모와 외부 인사들을 초청 초청할
수 있는 곳에서 진행함으로써 공연의 대외적인 면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군은 “이번 새터를 통해 외대인이라
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
도 전했다.

손보물 기자

지난 달 11일(수) 우리학교 교육대학원이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시행한 전국 교육대학원 평가 결과 종합
우수 등급을 받았다. 04년과 05년에 걸쳐 전국 111개
교육대학원에 대해 이뤄진 이번 평가는 교원양성기
능과 교원연구기능의 질적 관리를 위해 실시됐다.
평가영역은 총 3개 영역으로 교육프로그램 분야,
인적 구성 분야, 교육여건 분야로 나뉘었으며 우리대
학은 교육 프로그램 영역에서 우수등급을, 인적 구성
과 교육여건에서 보통등급의 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육과정과 교육
여건에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교과교육 교
화를 위한 전공교수의 확보 및 관련 과목 개설비율이
저조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6월
말까지 자구노력계획서를 제출받아 현장방문 평가를
통한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이준 교육대학원 선임 주임교
수는 “교육대학원의 종합발전계획과 교육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교수님들의 노력과 함께 지난해에 진행
했던 대학원의 리모델링과 같은 기반시설의 확충으
로 인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최우수등급을 받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전
문대학원으로서의 전환을 위해서도 종합적 연구 시설
투자, 전임교수 확충과 같은 학교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zeros612@hufs.ac.kr

* 외대학보에서 만평기자들이 모집합니다.

참신한 시각을 가진, 만화에 자신있는 외대인이아
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됩니다.)
Email : hufspress@hufs.ac.kr
연락처 : 011-9629-1061 (사회부 오재훈 기자)

016-321-0465(문화부 장승조 기자)

학내 단신 >>>

양배움터, 방중 동안 큰 공사 진행

이번 겨울방학 동안 양 배움터 모두 큰 공사가 진
행했다.

서울배움터에서는 학생회관 및 기숙사와 법학관
신축공사, 신본관 증축 공사가 2년 간의 일정을 목
표로 지난 달 16일(월) 착공했다. 또한 시청각교육
원 5층 강의실의 환경 개선 및 교강강의실 확충공
사, 우리 온실 및 온실 창고의 이전·신축 공사가 각
각 12월(일)과 20일(월)에 완공을 예정이다.

한편 용인배움터는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노천극
장 공사가 20일(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총 11
개의 고급강의실이 개강 전까지 완공된다 (여문관
2개, 정보산업공과대학건 7개, 본관 7개). 여학
생회관의 리모델링도 개강 후 이뤄질 예정이다.

용인배움터 정하목 관리과장은 “제철 특성상 많은
공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
주요 공인들이 착공되거나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FLEX 접수 오는 22일(수)까지

우리학교가 개발한 외국어 능력시험 FLEX
(Foreign Language Examination)가 오는 19일
(수)에 06년도 제1회 시험을 실시한다. 접수는 오는
22일(수) 오후 6시 까지이며 응시언어는 영,영,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
본어로 총 7개 언어다. 응시 자격 제한은 없으며 응시
영역은 듣기/읽기, 말하기, 쓰기의 3개 영역이다.
또한 영역별로 선택해야 시험에 응시 할 수도 있
다.

FLEX를 치를 경우 우리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
가 인정하는 인증서가 발급된다. 또한 신입사원 체
용 시 선발기준으로도 활용되며 상생그룹을 비롯
한 기업체, 공공기관 임직원의 외국어 사용능력 평
가지료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된다.

FLEX 인증서 및 성적의 유효기간은 시험일자로
부터 2년이다.

학술지 3개 등재 후보지로 선정

지난해 12월 30일(금)에 우리 학교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3개가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
지로 선정됐다.

선정된 학술지들은 동남아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동남아 연구’, 중남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중
남미 연구’, 법학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외법논
집」이다.

등재 후보 학술지인 학술진흥재단에서 학술지
의 제제와 및 질적 향상 제고를 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등재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대학 연구 수준
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대학 평가 시 일반 논문보
다 비례 높은 점수를 부여 받을 수 있다.
또한 논문 출판 비용 지원 등의 재정적인 이점이
있다. 이 등재 후보지들은 연 후 다시 평가를 받
아 등재지 승격 여부가 결정된다.

대학부

양배움터 학위수여식 첫 분리시행

오는 24일 양배움터 노천극장에서 진행

06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처음으로 양배움터에서
분리 시행된다. 이는 지난 달 6일 용인배움터 학내
운영위원회(총학생회장 이하 과회장) 이상의 대표자
들이 모이는 회의에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
다. 이 후 지난 달 30일(월) 학생대표자식 분리시행안을
학교 측에서 받아들임으로써 시행이 결정됐다.

분리 시행에 대해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 김준식
(아시아프리카·인도어 99)군은 “용인배움터에 대
한 학생들의 자부심과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고 말했다. 양배움터 졸업준비위원회(총준위)는 “몇
년 전부터 논의되어 드디어 시행 될 것”이라
고 말했다며 용인배움터 총준위장 권오백(아시아아
프리카·마인어 00)군은 “언젠가는 이뤄졌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서울배움터에서 진행됐던 종전의
졸업식은 약 300여 명에 이르는 졸업생들과 가족들
을 한산인해줄 이었지만, 이번 분리 시행으로 인해 주
차문제를 비롯해 교통문제의 사정 해결 장소가 협소
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오는 24일(금)에 열리며 서울배
움터는 오전 11시, 용인배움터는 오후 2시 30분 부터
양배움터 노천극장에서 진행된다. 우천시 서울배움
터는 인문관 대강당에서, 용인배움터는 자연대강당
에서 열리게 된다.

*주의 사항: 양배움터 모두 기온과 학사모의 반납금
이 있어야 교과대학에서 학위증을 수령할 수 있다.

채송하 기자

2월 13일(월) ~23(목)	서울배움터		용인배움터	
	졸업앨범	기운 및 학사모	졸업앨범	기운 및 학사모
2월 24일(금) 졸업식 당일	학생회관 1층 여학생복합 실 또는 매점	사학과학관 2층 (205,208, 308/301,308)	학생회관 1층 전신실	학생회관 앞 농구장

06 새내기, 四人四色!

얼마 후면 06학번 새내기들이 외대에서 '첫 봄'을 맞게 된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새내기들, 그런 만큼 그들은 서로 다른 각자의 꿈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번 새내기호에서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새내기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무한한 꿈을 담아 보았다. 인터뷰·김태형 기자

나이지리아에서 온 청년, 제임스 아키본 씨



아버지의 지인이 마침 한국인이어서 그분의 소개로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아키본 씨는 한국에 오기 전 모국에 있는 Yaba College of Technology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다. 그 후 약 2년 간 아버지의 회사에서 회계 일을 하다 한국으로 들어와 연세대 한국어학당에서 1년 간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한다.

이렇듯 아버지가 지인 소개로 한국에 오게 된 아키본 씨는 외국어를 잘 먹고 또 즐기는 편이라고 한다.

이렇듯 아버지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온 아키본 씨는 외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한국에 있는 대학을 인터넷 검색으로 검색한 결과, 외대의 국제학부가 모든 전공 수업에서 영어만 사용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한 학부의 커리큘럼이 마침 제가 공부하고 싶던 한국경제, 아시아경제와 들어맞아 지원하게 됐어요"라고 말했다.

외대를 졸업하고, 일본이나 중국에서 더 공부를 한 다음,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고 싶다는 아키본 씨는 06학번 새내기에게 조언한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대학에서 보내는 시간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간을 낭비하지는 마세요!"

대학에 갓 입학한 새내기들은 전국에서 모인 자신의 동기나 선·후배를 보면서 지금껏 겪은 사람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을 보면, 그 기본은 한층 더해지기 마련이다.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은 서울배움터 국제학부에 '외국인 전형'으로 편입하게 된 나이지리아인 제임스 아키본 씨다.

한국 생활이 어렵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아버지의 친구분께 도움을 많이 받아 생활 면에서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화가 다르다보니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어요"라며 한 일화를 털어놓았다. "1년 전 연세대 앞에서 하숙을 하던 시절, 호기심에 하숙집 감치를 먹은 적이 있는데 너무 매워서 한동안 고생했어요" 그는 그 때의 기억

로봇매니아, 채민성 군



것 하나에 몰두하게 되면 직성을 채울 때까지 파는 성직입니다"라고 소개한 채 군은 로봇에 대한 관심도 많고, 지식도 많은 '로봇 매니아'다.

로봇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 채 군은 "처음엔 무언가를 조립하거나 분해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짜는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로봇'이란 단어를 통해 여러 가지 모습들을 떠올린다. SF영화에 등장하는 인간의 조수 노릇을 하는 로봇부터, 드라마 '카이스트'에 등장한 죽음을 하는 로봇들까지... 이런 로봇들에 대한 관심과 사람이 날다른 새네기가 있다. 올해 용인배움터 전자정보공학부에 '자기추천자' 전형으로 입학하게 된 채민성 군이 그 주인공이다. 자신을 "일단 어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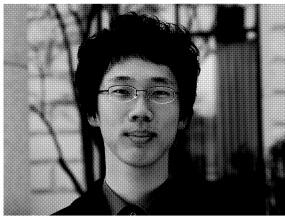
로봇의 모습에 흥미를 갖게 됐어요"라고 말한다. 채 군은 2004년 7월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주최한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 대회에 고등학교생부로 여러 번 출전하여 라인드레이서(로봇미로찾기) 부문에서 은상을, 같은 해 8월엔 계단오르내리기 부문에서 전국대회 은상을 받는 등 화려한 입성경력을 자랑한다. 이렇듯 탄탄한 경력을 가진 채 군은

"로봇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공부도 하고 싶고, 로봇 관련 동아리에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대학생활을 하면서도 로봇올림피아드에 계속 출전하고 싶어요"라며 당찬 포부를 전한다. 또한 장차 직업도 로봇과 연관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

로봇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지하고 전문적인 것도, 대학생활을 앞둔 소감에 대해서는 "동기들과 허물없이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리고 선배님들께서 대학생활에 대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라며 들뜬 모습을 보였다.

중·고등학교 때처럼 누구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운 대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는 앞으로 함께 생활할 선배들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자신의 관심분야에 '젊음'이라는 에너지가 아끼지 않는 채 군의 멋진 대학 생활을 기대해 본다.

Global Leader로의 꿈, 김지수 군



시 1학기 'TOEFL 성적우수자 전형'으로 합격한 김지수 군은,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새내기다.

김 군은 고등학교 때부터 TOEFL을 꾸준히 준비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미 300점 만점을 획득했다. 이렇게 놀라운 영어 실력을 가진 김 군에게 자신의 영어공부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하자 그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영어 책을 꾸준히 읽으세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어 실력이 놀라운 만큼 향상되어 있을 거예요"라고 말한다.

그는 수시 합격 후 영어문서 번역 아르바이트와 중국 여행으로 어학 분야에의 관심을 늦추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듯 김 군은 외국어를 배우려는 열정 또한 남다

외대에 있는 많은 학생들은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꿈을 안고 들어오고, 또 그 꿈을 위해 노력한다. 물론 '외국어 완전정복'의 꿈이야 거의 모든 대학생들의 꿈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은 '외대' 이기에 그 꿈이 더 큰 것 아닐까. 올해 서울배움터 영어통번역학과에 수

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김 군이 외대에 걸고 있는 기대는 크다. 또한, 외대에 들어와서 하고 싶은 일도 많다. "전공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지만, 국제학 수업과 중국어 수업도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동기나 선배들도 많이 사귀고 싶고, 운동 관련 동아리도 해 보고 싶어요" 김 군은 장차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외교통상부에서 근무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자신을 "사람과 사귀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해요"라고 소개한 김 군의 이런 모습에서 대학 생활에 대한 끝없는 열정과 패기를 함께 느낄 수 있었다.

품많은 소녀, 변지선 양



세르비아 · 크로아티아 어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 변 양은, "진로에 대해 상담 선생님과 상의한 결과 앞으로 통유권이나 각광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많은 고민 끝에 지원하게 됐어요"라고 말한다.

합격 통지를 받은 뒤 변 양은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에 관련한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한국과 크로아티아의 축구경기도 관람했다고 한다.

스무 살의 꿈은 무엇인 이에게는 애뜻한 추억을 안겨주고 꾸는 이에게는 부푼 기대감과 열정을 안겨준다. 올해 용인배움터 세르비아 · 크로아티아어과에 수시 2학기 '외대프론티어 II 전형'으로 입학하게 된 변지선 양은 바로 스무 살의 꿈을 멋지게 키워나가고자 노력하는 새내기다.

변 양은 대학에 들어와 하고 싶은 일을 열거하면서 새네기의 꿈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성적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라는 변 양은 이어서 "전공 외에도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해 보고 싶어요. 우선 일본에 관심

이 많기 때문에 일본어 공부도 하고 싶고, 장래에는 펀드매니저가 꿈이기에 무역학, 경제학 공부도 하고 싶어요"라며 학업에 대한 부푼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고등학교 시절 일본문화 동아리를 직접 만든 경험이 있는 변 양은 동아리 활동에 대한 욕구도 남다르다. "이미 기록과 동아리 'C.C.C'나 밴드 '아웃사이더'에 대한 정보를 들었어요. 이 두 동아리에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변 양은 이 밖에도 친구와 함께 인터넷 쇼핑을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등, 자신의 스무 살 꿈을 충실한 모습으로 의욕적인 새네기였다. "평범한 것은 싫어요. 그리고 '중간'이 아닌 삶을 살고 싶어요" 인터뷰 시작부터 느낀 변 양의 적극적인 모습은 새네기들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돋우기 충분했다.

2~3월

학사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2	13 용인 14학번	14 용인 23학번	15 서울 14학번	16 서울 23학번	17 전체	18
신입생 수배검사와 수감신청 & 등록기간 (홍복학번포수검수)						
19	20 서울 · 용인 새내기 배움터	21	22	23	24 06학기 학부1수석식	25
26	27 기상	28	3/1 3·1절	2 신입생입학식	3	4
수감신청검정						
5	6	7	8	9		

외대인의 하루 속으로, Go Go!

이문벌 생활백서

#1-저를 소개합니다-



반가워요~ 저는 서울배움터 스칸디나비아어과 04학번 박도유입니다.

06학번 새내기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네요.

지금쯤이면 입학식을 앞두고 많은 다짐들을 할 텐데요, 항상 적극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도, 놀도, 늦도 모두 적극적으로 한다면 정말 의미 있고 재미있는 대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외대에 온 새내기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지취방에서의 아침



아, 오늘도 지각이!!
어제 학회 뭉클이 때문에 술을 너무 마시고 잤더니 얼굴이 땀방 부었다.
아침... 오늘 수업은 인문과학관 6층이다. 아무리 우리 집에서 학교 앞까지 5분 거리라지만, 6층의 압박은 당해낼 길이 없다. 한 바탕 뛰어 보삼!

아! 다행히도 동지를 만났다. 인천에서 통학하는 네 친구 녀석! 오늘도 같이 뛰어보자꾸나~

#3-수업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 가보니, 전원 시선집중!

아, 오늘 내가 발표였지...

발표하는 날 지각이라니!! 아, 학점이 온다.ㅠ_ㅠ

다음 시간은 시청각교육원 6층에 있는 Lab실 수업이다. 인문과학관 6층에서 시청각교육원 6층까지... 구름다리 없었으면 어떡할 뻔 했어~ 수월하게 강의실에 도착했으니 이번 강의라도 열심히 해보자!-!!

#4-점심, cafe

후배가 점심을 사달란다. 싸고 맛있는 학생식당에서 먹을까 했지만, 특별히 후배가 먹고 싶은 것이 있다가에 후문 뒤에 있는 '정말로 김밥'을 먹었다.



후식으로 친구들과 통번역 대학원 2층에 있는 cafe에서 따뜻한 코코아 한 잔!

#5-외국인 친구



수업을 가던 중 우연히 친구를 만났다. 영국에서 온 친구는 영어교육학을 공부 중이다. 한국어에 정말 잘한다. 오늘도 유창한 나의 외국어 한마디!
"Hello~"

#6-도서관

50만 권의 장서가 있는 우리 학교 도서관!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을 찾으려 도서관에 왔다.
아, 여기 찾았다!
시험기간이면 항상 꽉 찼던 좌석표들이 한가하네.
오랜만에 공부나 한만 해볼까?!



#7-시청각 교육원

다음 수업은 시청각교육원 4층. 가벼운 마음으로 친구와 휴식을 취하다 교실에 와 보니, 칠판에 크게 써 있는 두 글자. '휴강'!!! 시청각교육원에 온 김에 DVD나 한 편 볼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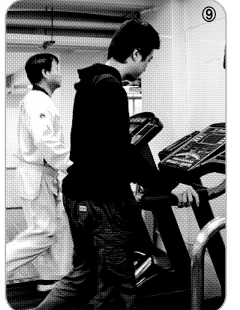


#8-과방

공강 동안 과방에서 있는데, 문을 열고 해맑게 웃으며 들어오는 후배 녀석들.
아, 수업 끝났구나!
과방에 모여든 아이들은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바탕 이야기꽃을 피운다.
옆에서 기타를 치고 계시는 계강형남. 나는 곁에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른다.
학관(학생회관)에 있는 새 생활의 안식처, 과방!



#9-헬스장



과식했나보다... 운동해야지!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멋진 몸매를 원하신다면, 꾸준히 운동을 하십시오. 오늘도 멋진 몸매를 꿈꾸며 시청각교육원 지하에 있는 헬스장으로 GoGo!!

#10-귀가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흘러간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던 이 곳! 이제는 정겨운 학교 일 풍경이다. 너무나도 좋다.
세월이 흘러도 이곳에서의 추억은 잊지 못할 것 같다.
새내기들아, 대학 캠퍼스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만들어보지요!

기획: 장소라 기자 seamaria@hufs.ac.kr
홍은미 기자 denobla@hufs.ac.kr

왕산골 생활백서

#1-저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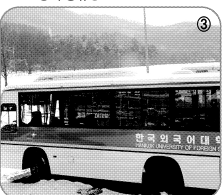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외대 새내기 여러분! 저는 용인배움터 일반어과 05학번 심재범이라고 합니다. 외대로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구요, 반갑습니다! 공이 좋고 경치 좋은 왕산에서의 생활, 기대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저의 하루를 공개합니다~

#2-기숙사에서의 기상



아침 8시 기상, 기숙사생의 가장 큰 이점은 잠을 더 잘 수 있다는 것이다. 통학을 하는 친구에게서 7시 20분에 문자가 와 있다. 그때 스물배스를 탔다는 한. 한 시간 동안 차 안에서 꽤 심심하겠군... 내가 1교시 시작 전에 자람기 커피라도 봐야겠다. 아~ 그나저나 아침시간, 기숙사 세면대는 그야말로 전쟁이다. 으음_=_;

#3-행차 정류장



(행차는 학생들이 애용하는 학내 셔틀버스다. 식행처럼 생겨서 행차라고~)
기숙사를 나서며 행차 정류장까지... 또 포민이다. '이대로 어문학관까지 걸어가? 아님, 행차를 기다려봐?' 고민을 하던 중, 멀리서 행차가 보였다. 아호! 오늘 지각은 면했다. 언제나 우리의 발이 되어 주는 행차~ 사랑해요!!

#4-수업시간 전 커피자판기 앞



교양관 1층에서 나의 베스트 프렌드 경진이를 만났다. 수업시간 전, 싸고 맛있는 자판기 커피 한잔을 마시며 수다한판~♪ 교양관 매점에는 '밀라노의 아침'에서 take out 커피(더 맛있고 훨씬 비싼 >0<)를

사들고 가는 학생들도 많다. 그치만 친구와 함께라면 100원짜리 커피도 맛있다고!

#5-수업

오늘은 졸지 않고 열심히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 아자! 아자! 아자!
근데 왜 이렇게 졸리지? 안돼. 팔기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어. 아, 근대 방금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더라... "오정기 데스까?"



#6-명수당



드디어 수업이 끝났다. 아호~ 꿀맛같은 공강시간! 친구 경진이와 명수당에 왔다. 명수당에서 바라 본 왕산의 경치는 그야말로 예술이다. 카~ 어느 각도로 봐도 다 예술이잖아! 아~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뭘 먹지... 그 때, 경진이와 feel이 통했다. "자정면 시켜 먹자!" 명수당 자정면 파티가 개피(?)되

는 순간! "핑핑핑핑~ 거기 00반점이지? 여기 명수당에 자정면 두 그릇 이요~" 언제 봐도 유능하신 00반점 배달원!

#7-시청각 교육원

다음 주까지 레포트들 내야 하는데... 아~ 밀리지 않게 미리 준비해야지. 지금은 레포트를 위해 관련 영화 한 편 보러 시청각 교육원에 왔다. DVD방 정도의 시설은 아니지만 인력한 공간에서의 DVD시청! 유후~ 학교에서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쏘아!

#8-서점



후생복지관 2층에 있는 구내 서점에 들렀다. 관심 있는 책도 보고, 수업에 필요한 교재도 샀다. 반대편에 보이는 구내 여행사에 선배 한분이 보인다. 여행 상담을 받고 있나 보다. 올 여름 호주여행을 가신다니... 부럽다. 후생복지관 2층엔 서점과 여행사 외에도 문구점, 안경점, 카페, 학생서비스센터가 있어서 내가 자주 들르는 곳이기도 하다.



#9-동아리방

방과 후,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생회관으로 GOGO! 운동도 하고, 마음의 수련(?)도 할겸 검도부에 가입 해 매일 검도 연습을 하고 있다. 도복을 갖춰 입고, 검을 들고 있는 내 모습, 어때? 다들 관심있어? 나 말고 검도 말아...ㅋㅋ



#10-귀가

해는 뉘엿뉘엿 저 가고 하늘엔 노을이 깔려 있네. 이 모습 역시 절경이다~ 왕산에서의 나의 하루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다. 기숙사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가볍다. 아! 내일은 어떤 즐거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

